

인천시 「일자리 고용분과위원회」 제6차 회의 결과보고

□ 회의 개요

- (일시/장소) '19.11.14.(목) 10:00~11:30 / 미추홀타워 2층 회의실
- (참석위원) 위원 14명 중 9명 참석
- (주요내용)
 - 1) 일자리위원회 심의안건 추진상황 보고 및 논의
 - 인천지역 기업 연계형 청년 일·경험 지원 사업
 - 인천지역 숙련기술인 기술 전수사업
 - 2) 2020년 주요 운영 의제 자유 토의

□ 논의 내용

① 기업 연계형 청년 일·경험 지원 사업 논의

- 인천의 우수기업을 청년에게 알리고, 진로 체험 위주로 사업 운영 예정
 - 취업 목표 설정 시 참여기업 위축 우려
 - 유사한 금융투자협회의 금융 관련 체험프로그램 참고(홍○○ 위원)
- 학교에 기업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최근 진로에 관련된 사업체에서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활성화 된다면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굳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(김○○, 김○○ 위원)

② 숙련기술인 전수 사업 논의

- 미추홀명장, 대한민국명장 직종을 보면 전통적인 직종*에만 집중되어 있는데,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직종에 대한 풀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(오○○ 위원) * 중기계정비, 용접, 건축시공 등
- 학교들 사이에 명장에 대한 욕구가 높는데 숙련기술인 전수 사업을 통해 학교에 명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함(김○○ 위원)

- 인천이 양성하고 싶은 특성화된 분야를 지정하고, 이 분야에 맞는 명장과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함(김○○ 위원)

③ 2020년 주요 논의 의제 자유 토의

- 경제·산업·고용 분야 정책이 어우러져 일자리 정책 기획을 위해 의견 교환 자리 필요(이○○ 의원)
- 인천시에서 지정한 강소기업, 비전기업을 있는데 청년들이 왜 모르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 있음(김○○ 위원)
- 청년들이 고학력화로 인천의 기업에 대한 홍보 방법도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등 청년들의 인식에 맞춰가야 함(이○○, 윤○○ 위원)
- 타 지역은 공장에 카페를 만들어 젊은층들을 위한 공간창출
 - 이처럼 문화와 매칭해서 젊은층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함(오○○ 위원장)
- 우수한 학생들을 기업과 매칭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기업체험, 발표, 프로모션 등을 하는 기업 홍보대사를 맡기면 좋을 것 같음(윤○○ 위원)
-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기업이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업과 함께 커뮤니케이션하는 등 고민이 필요함(이○○ 위원)

□ 논의 결과

- (2020년 일자리 고용분과위원회 운영 방향)
 -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실제 정책 수요자가 참여하여 함께 토론하는 회의 방식으로 운영
 - * 청년들의 애로사항, 요구사항 등 의견 수렴
 - * 중소기업, 중견기업 등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 마련 등